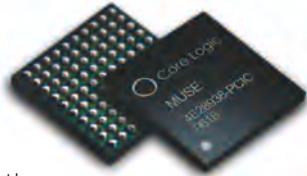




코아로직, 토털 멀티플랫폼 발표

코아로직(대표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지난 2월 1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3GSM 월드 콘그레스 2007'에서 뮤직폰 플랫폼(사진)을 비롯해 고해상도 센서를 지원하는 차세대 이미지 시그널프로세서 ISP2, 3차원 그래픽 기능 제공 칩 등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 코아로직의 차세대 ISP2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 모바일 TV(DVB-H) 단말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최신 제품으로, 500만 화소 화소급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지원하고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뮤직폰 플랫폼은 사운드 구현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통합해 MTP(Media Transfer Protocol)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세계 휴대폰 시장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뮤직폰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코아로직은 이번 전시회에서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지원하는 '헤라3D' 제품도 선보였다.

황기수 사장은 "이번 3GSM에서 코아로직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이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칩 설계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토털 멀티미디어 플랫폼 제공업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나릿시스템, 공개형 코어 통합개발환경 출시

다이나릿시스템(대표 김종석 www.dynalith.com)은 공개형 코어 '오픈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를 이용한 반도체용 통합 개발환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재설정가능반도체(FPGA) 프로토타이핑 보드인 '인사이더'와 SW 통합개발환경 '오픈아이디어'로 구성된 제품으로, GUI 기반으로 HW와 SW를 동시에 디버깅 할 수 있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오픈아이디어'는 HW 설계에서부터 프로토타입까지 SoC 개발·검증 과정에 필요한 모든 툴을 통합한 개발환경으로, 편리한 SW 개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오픈코어 라이브러리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이나릿이 이번에 개발한 툴킷은 MDS테크놀로지가 판매를 전담할 예정으로, MDS 테크놀로지는 2월 14일 이 제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다이나릿시스템은 지난 1월 MDS 테크놀로지에 영업 독점권을 부여하며, 협력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

픽스트리, PMP 및 T-DMB 단말기 레퍼런스 디자인 및 솔루션 출시

멀티미디어 전문업체 픽스트리(대표 신재섭 www.pixtree.com)가 마블의 '모나한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활용한 PMP, T-DMB 단말기의 레퍼런스 디자인 및 솔루션을 출시했다.

모나한스 프로세서는 인텔이 개발한 모바일 단말기 전용 프로세서다. 작년 7월 마블이 인텔의 이동통신·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직접 출시했다.

픽스트리는 이번에 출시한 단말기 레퍼런스와 솔루션이 T-DMB와 내비게이션 복합 단말기에서 한 화면을 둘로 나누는 PIP 기능과 양방향데이터방송(BIFS) 등 각종 데이터방송을 수월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신재섭 사장은 "핵심 역량인 코덱기술을 바탕으로 모나한스 성능을 최대한 활용한 PMP와 T-DMB 솔루션을 제공해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던 국내 업체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윈텍, 통신용 반도체 공략

다윈텍이 기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에 이어, 통신용 반도체 사업에 나선다. 팜리스기업인 다윈텍(대표 김광식 www.dawintech.co.kr)은 삼성전기가 미국 아이비퀴티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고음질(HD)급 라디오 수신칩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HD 라디오는 아이비퀴티의 'BOC' (In-Band On-Channel) 기술을 기반으로 둔 미국식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기술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병행해 방송·뉴스·교통정보 등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는 현재 미국 이외에 브라질·필리핀 등이 방송 송출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스위스·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 등은 시험 중에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올해 방송위원회에서 디지털라디오 시행을 검토하는 데 따른 예산이 책정되는 등 향후 라디오 수신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독일 DMB 칩 공급 위해 알란브릿지와 MOU 체결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 www.cnstec.com)는 독일에 DMB 멀티미디어 칩 공급을 위해 알란브릿지코리아와 사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알란브릿지코리아는 독일 DMB 사업자인 'MFD(Mobiles Fernsehen Deutschland)'의 단말기 및 AS를 제공하는 전담 대리점으로, 알란브릿지코리아는 이번 제휴에 따라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DMB 멀티미디어 칩을 활용한 제품을 MFD에 공급하게 됐다.

독일 MFD는 유럽 최초로 지상파 DMB 서비스인 와치TV(Watcha TV)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자로, 월정액 10유로의 시청료를 기반으로 4개 TV 채널과 1개의 오디오 채널을 운영 중이다. 현재 상용 서비스는 10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0개 중소도시까지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이번 제휴를 통해 DMB용 멀티미디어 프로세서를 독일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승모 사장은 "독일을 근간으로 유럽지역의 휴대폰 및 다양한 DMB 단말기 업체에 칩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넥실리온, MBC KBS TPEG 인증 모두 획득

넥실리온(대표 배성욱 www.nexilion.com)은 자사의 DMB 칩이 지상파DMB 실시간교통정보(TPEG) 서비스를 MBC 방식과 KBS 방식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다.

넥실리온의 칩은 MBC와 KBS 방식 모두 인증을 받아서





MBC용 단말기와 KBS용 단말기에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넥실리온의 칩을 사용하면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줄여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넥실리온의 DMB 칩은 멀티미디어와 지상파DMB 베이스밴드 모뎀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것으로 각 방송사별 TPEG 지원을 위해 멀티미디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 모두 내장하도록 했다.

넥실리온 배성욱 사장은 "방송사업자 별로 TPEG 과금방식이 다름에 따라 내비게이션의 기술표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및 관련 칩 업체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넥실리온은 MBC에 이어 기술방식이 다른 KBS TPEG 인증도 획득함으로써, 향후 어떤 방송사업자의 TPEG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엑스크립트, 오키와 CAS 칩 라이선스 계약

방송 수신제한시스템(CAS) 솔루션 업체 엑스크립트(대표 손광섭 www.xcrypt.co.kr)가 일본 반도체 업체 오키와 중국 케이블카드 시장 진출을 위한 CAS 칩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엑스크립트는 오키에 케이블카드용 CAM(수신제한 모듈)과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IP)을 제공한다.

오키는 작년 5월께 엑스크립트의 CAS 칩을 공급받아 시험용 케이블카드를 제작했으며 연말 중국 신식사업부(MII)의 인증을 받았다. 중국 광둥성 상주지역 케이블TV 사업자가 이 제품이 장착된 셋톱박스로 시험방송을 진행 중이다.

엑스크립트는 "65만달러의 초기 기술사용료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판매량 대비 러닝로열티도 보장받았다"며 "향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광섭 사장은 "작년 말 이후 영업인력을 보강, 활발한 사업전개를 하고 있다"며 "오키 외 다양한 해외 업체와 CAS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즈넷, 랩리스 반도체 기업 최초로 세계일류상품인증 획득

위즈넷의 '하드웨어 TCP/IP 칩'이 2006년 12월 세계일류상품인증 획득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가 분야별 전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연속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제품에 대해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주)위즈넷은 인터넷통신용 반도체 설계전문 벤처기업으로 인터넷통신을 위해 사용되던 소프트웨어 TCP/IP를 세계 최초로 하드웨어 TCP/IP IP Core 형태로 개발한 기업이다. 이는 세계 유일의 위즈넷만의 독자 기술로 1996년부터 정부 과제로 연구되어 1999년 IP 형태로 구현되었고 2001년 ASSP 칩으로 상용화되어, 현재 전세계 2,000개 이상의 업체가 위즈넷 TCP/IP 칩을 채용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위즈넷은 해외 마케팅 및 프로모션 역할을 키워 전세계 25개국에 걸쳐 40여 대리점 망을 구축하고, 3년 연속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해외 매출의 비중을 약 75%까지 끌어 올림으로써 시장성에 대한 경쟁력을 확실한 수치 데이터로 입증하여 당당히 정식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증 받았다. 더불어 그간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이르기까지 9가지 특허를 획득한 것도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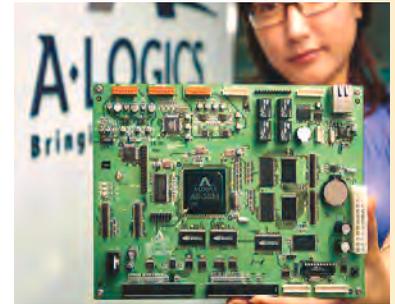
에이로직스, DVR용 4채널 SoC AS-3024 양산

에이로직스(대표 김주덕 www.alogics.co.kr)는 4대의 CCTV 카메라 입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MPEG4 코덱 기반의 4채널 DVR용 시스템온칩(SoC) 'AS-3024(사진)'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S-3024는 지난 2006년 7월에 개발된 제품으로 MPEG4 압축코덱, 이미지 프로세서 등 DVR 세트 내 원가비중이 큰 대부분의 부품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로직스는 국내와 대만, 중국, 일본의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1차 솔루션을 시연하며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보안기기 전시회에도 이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주덕 사장은 "MPEG4 기반의 DVR용 SoC AS-3024에 이어 올해에는 H.264기반의 SoC도 선보일 계획"이라며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무선 CCTV 카메라용 모뎀솔루션까지 갖추게 되면, 최근 몇 년간 준비해 온 경쟁력있는 DVR용 SoC제품군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직아이, 멀티미디어 칩 개발

매직아이(대표 손해운 www.mesdigital.com)는 내비게이션·DMB·PMP·MP3플레이어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듀얼코어와 듀얼 메모리뱅크를 채택한 멀티미디어 칩 'MMSP2+'(사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칩은 모바일 TV, 3D 그래픽, 외부 비디오입력 시 녹화 기능 등 컨버전스 시스템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기능이 칩에 내장돼 있어 시스템 모델확장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고사양 애플리케이션과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클럭속도가 향상된 두개의 코어를 채택했고, 듀얼 메모리 뱅크구조로 메모리 효율성을 높였다.

이 제품은 MPEG4 SP/ASP, MPEG4 인코딩, TV(NTSC/PAL) 인코더, 비디오 스케일러 등 PMP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H.264 등으로 모바일 TV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DMB와 PMP기능을 포함하는 단말기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4개의 디스플레이 레이어와 외부에 2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기능도 내장, 별도의 디스플레이칩 없이도 휴대용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MMSP2+는 현재 DMB 내비게이션용으로 상용화된 MMSP2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단말기 컨버전스 시대의 요구에 맞춘 멀티미디어 칩이다. Ⓜ

